

한국 신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 분석: 2005~2008년 기사를 중심으로

오상환 · 남용옥¹ · 장종화²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¹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²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색인 : 신문기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의 명칭,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1. 서론

치과위생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 치과병의원이나 공공구강보건 부문에서 구강건강증진가, 예방치과진료자, 치과 진료협조자, 병원관리자, 교육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¹⁾.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활동영역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 위생사의 활동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으로 파악되어^{2,3)},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확대 발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 용액양치사업, 초기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의 치과질환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기사가 각 지역신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요양시설로 옮기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 요원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기사가 실리곤 한다.

대중성과 대량성, 그리고 신속성과 보존성의 특성을 갖는 매스미디어(mass media)는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성향을 띤 의사전달수단이다⁴⁾. 한 사회의 전통, 규범, 가치, 이념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그 사회구성원들은 매스미디어의 이용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여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 나간다⁵⁾. 매스미디어는 단순히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정보', 즉 정치체계 혹은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넘어서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 행동에 관여하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⁶⁾. 특히, 신문은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

일 뿐만 아니라 타 매체에 비해 정보의 수가 많고 기록성과 보존성, 반복성이 강하여 독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읽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⁷⁾. 신문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도의 기능, 해설 및 비판의 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을 들 수 있다⁸⁾. 대중은 TV, 라디오, 신문기사 및 인터넷을 통해 표현된 직군에 대해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직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이기 때문에⁹⁾, 이러한 맥락에서 매스미디어의 하나인 신문에 실린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의 분석은 그 시대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찰하고 시대적 경향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언론에 대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와 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언론의 영향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비전을 다각도로 제시해 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기사들을 발췌하고 그 내용을 고찰 및 분석함으로써 분류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중매체와 상호작용하는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신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신문종류, 게재연도, 취재지역별 기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신문에서 보도된 치과위생

사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기간의 선정은 자료이용의 가능성을 위해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로 정하였으며, 한국언론재단(Korea Press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방법은 제목과 본문에서 치과위생사를 언급한 기사를 뽑은 후, 연구자들이 두 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자료 추출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10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2.2. 연구내용

수집된 자료는 유목별로 분류하였고, 내용분석의 유목은 신문종류, 게재연도, 명칭표현, 기사유형(뉴스기사, 기획 및 해설기사, 평론, 인터뷰, 칼럼 및 기고), 기사주제, 취재지역 등이다.

신문종류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으로 구분하였고 중앙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포함되며, 각 지역별 발행된 신문은 지역신문으로 분류하였다. 기사유형의 세부항목은 정보 및 해설, 기획 및 특집, 평론 및 리뷰, 인터뷰, 칼럼, 뉴스로 분류하였다. 정보 및 해설은 치위생에 관한 지식을 총정리하여 중요한 논점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사를 말한다. 기획은 연속적인 기사에 치과위생사에 관한 소재를 다룬 것을 말하며, 신문사의 입장을 밝힌 기사를 평론 및 리뷰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기사를 칼럼 및 기고에, 기사가 사건의 발생과 질병상황을 사실 그대로 취재한 보도기사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기사주제는 충치예방, 인물, 행사, 행정 및 제도, 법적 업무, 사회 및 생활, 홍보 등으로 분류하였고, 취재지역은 서울, 국내 기타, 전국, 국외, 기타 지역과 관련 없

는 곳으로 구분하여 유목을 설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분석유목 설정과 기사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분석대상 310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표집을 통하여 5개씩 건너뛰는 방법으로 62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차이나 보완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절충한 후 측정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는 코딩자 간의 점수가 일치하는 항목을 측정하는 Holsti 신뢰계수법을 이용하여 96%의 타당성 점수를 얻었다.

각 유목별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엑셀프로그램에 의해 코딩된 분석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도별 신문종류

국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으로 유목을 분류하여 연도별 기사내용 빈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이 최근 들어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 발행 횟수가 많아지고 있었다(표 1). ‘중앙일간지’는 2005년부터 35건, 2007년 38건이 발행된 것에 비해, ‘지역신문’ 발행 횟수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45건, 2007년에는 109건으로 증가되어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표 1. 분석유목의 신뢰도

유목	신뢰도계수
신문종류	1.00
게재연도	1.00
명칭	0.95
기사유형	0.93
기사주제	1.00
취재지역	0.87
평균	0.96

표 2. 게재연도별 신문종류 단위: 건, (%)

게재연도	신문종류			χ^2 (df)	p-value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계		
계	120(38.7)	190(61.3)	310(100.0)	61.660	0.000*
2005	35(92.1)	3(7.9)	38(12.3)	(3)	
2006	37(45.1)	45(54.9)	82(26.5)		
2007	38(25.9)	109(74.1)	147(47.4)		
2008	10(23.3)	33(76.7)	43(13.9)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3. 신문종류별 명칭표현

단위: 건, (%)

명칭표현	신문종류			χ^2 (df)	p-value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계		
치과위생사	39(32.5)	92(48.4)	131(42.3)	7.840 (3)	0.049*
치과 위생사	7(5.8)	7(3.7)	14(4.5)		
치위생사	69(57.5)	84(44.2)	153(49.4)		
위생사	5(4.2)	7(3.7)	12(3.9)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4. 신문종류별 기사유형

단위: 건, (%)

기사유형	신문종류			χ^2 (df)	p-value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계		
정보·해설	22(18.3)	44(23.2)	66(21.3)	70.811 (5)	0.000*
기획·특집	17(14.2)	1(0.5)	18(5.8)		
평론·리뷰	3(2.5)	-	3(1.0)		
인터뷰·인물	19(15.8)	3(1.6)	22(7.1)		
칼럼·기고	11(9.2)	4(2.1)	15(4.8)		
뉴스	48(40.0)	138(72.6)	186(6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3.2. 신문종류별 기사의 특성

중앙일간지에서는 공식 명칭인 ‘치과위생사’로 사용하는 경우 39건(32.5%), ‘치위생사’라는 명칭 69건(57.5%)으로 나타났고, 지역신문에서는 ‘치과위생사’라는 공식 명칭 사용이 92건(48.4%)이었고, ‘치위생사’는 84건(44.2%)을 차지하였다. 한편, 전혀 다른 업종을 표현하는 ‘위생사’라는 용어도 12건(3.9%)으로 사용되고 있었다(표 3).

〈표 4〉에서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뉴스’가 48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해설’ 22건(18.3%), ‘인터뷰·인물’ 19건(15.8%), ‘기획·특집’ 17건(14.2%) ‘칼럼·기고’ 11건(9.2%), ‘평론·리뷰’ 3건(2.5%) 순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기고되는 것에 비해, 지역신

문에서는 ‘뉴스’가 138건(72.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정보·해설’ 44건(23.2%), ‘칼럼·기고’ 4건(2.1%), ‘인터뷰·인물’ 3건(1.6%) 순으로 게재되어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주제는 ‘사회·생활’이 28건(23.3%), ‘홍보’ 21건(17.5%), ‘인물’과 ‘행정 및 제도’ 19건(15.8%), ‘법적 업무’ 14건(11.7%), ‘행사’ 13건(10.8%), ‘충치예방’ 6건(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신문에서는 ‘행정 및 제도’가 68건(35.8%)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었고 ‘행사’ 57건(30.0%), ‘홍보’ 27건(14.2%), ‘사회·생활’ 17건(8.9%)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p<0.05$).

표 5. 신문종류별 기사주제

단위: 건, (%)

기사주제	신문종류			χ^2 (df)	p-value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계		
충치예방	6(5.0)	5(2.6)	11(3.5)	53.113 (6)	0.000*
인물	19(15.8)	6(3.2)	25(8.1)		
행사	13(10.8)	57(30.0)	70(22.6)		
행정 및 제도	19(15.8)	68(35.8)	87(28.1)		
법적 업무	14(11.7)	10(5.3)	24(7.7)		
사회, 생활	28(23.3)	17(8.9)	45(14.5)		
홍보	21(17.5)	27(14.2)	48(15.5)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6. 게재연도별 기사종류

단위: 건, (%)

기사유형	게재연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보·해설	10(26.3)	16(19.5)	29(19.7)	11(25.6)	66(21.3)
기획·특집	9(23.7)	6(7.3)	2(1.4)	1(2.3)	18(5.8)
평론·리뷰	0(0.0)	1(1.2)	2(1.4)	0(0.0)	3(1.0)
인터뷰·인물	4(10.5)	9(11.0)	8(5.4)	1(2.3)	22(7.1)
칼럼·기고	6(15.8)	3(3.7)	4(2.7)	2(4.7)	15(4.8)
뉴스	9(23.7)	47(57.3)	102(69.4)	28(65.1)	186(60.0)
$\chi^2 = 55.457$, df = 15, p-value = 0.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3.3. 게재연도별 기사의 특성

게재연도에 따른 기사유형은 <표 6>처럼 2005년에는 ‘정보·해설’이 10건(26.3%), ‘기획·특집’과 ‘뉴스’는 9건(23.7%), ‘칼럼·기고’ 6건(15.8%), ‘인터뷰·인물’ 4건(10.5%) 순으로 보도 빈도가 높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뉴스’가 각각 47건(57.3%), 102건(69.1%), 28건(65.1%)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정보·해설’이 각각 16건(19.5%), 29건(19.7%), 11건(25.6%)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신문에서 다뤄진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표 7), 2005년에는 ‘행정 및

제도’와 ‘사회·생활’이 10건(26.3%)으로 주된 주제였고 ‘홍보’ 7건(18.4%), ‘충치예방’ 5건(13.2%)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행사’가 20건(24.4%), ‘홍보’ 16건(19.5%), ‘사회·생활’ 15건(18.3%), ‘행정 및 제도’ 14건(17.1%) 순이었다. 2007년에는 ‘행정 및 제도’가 46건(31.3%), ‘행사’가 44건(29.9%), ‘법적 업무’가 16건(10.9%) 순으로 나타났다($p<0.05$).

표 7. 게재연도별 기사주제

단위: 건, (%)

기사주제	게재연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충치예방	5(13.2)	2(2.4)	3(2.0)	1(2.3)	11(3.5)
인물	3(7.9)	10(12.2)	10(6.8)	2(4.7)	25(8.1)
행사	3(7.9)	20(24.4)	44(29.9)	3(7.0)	70(22.6)
행정 및 제도	10(26.3)	14(17.1)	46(31.3)	17(39.5)	87(28.1)
법적 업무	0(0.0)	5(6.1)	16(10.9)	3(7.0)	24(7.7)
사회 · 생활	10(26.3)	15(18.3)	14(9.5)	6(14.0)	45(14.5)
홍보	7(18.4)	16(19.5)	14(9.5)	11(25.6)	48(15.5)

$$\chi^2 = 51.375, \quad df = 18, \quad p\text{-value} = 0.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8. 게재연도별 취재지역

단위: 건, (%)

게재연도	취재지역					계
	서울	국내 기타	전국	국외	무관	
계	17	239	9	6	39	310
2005년	3(17.6)	25(10.5)	2(22.2)	1(16.7)	7(17.9)	38(12.3)
2006년	9(52.9)	56(23.4)	1(11.2)	1(16.7)	15(38.5)	82(26.5)
2007년	3(17.6)	122(51.0)	6(66.7)	3(50.0)	13(33.3)	147(47.4)
2008년	2(11.8)	36(15.1)	-	1(16.7)	4(10.3)	43(13.9)

$$\chi^2 = 19.499, \quad df = 12, \quad p\text{-value} = 0.077^*$$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9. 취재지역별 신문종류

단위: 건, (%)

신문종류	취재지역					계
	서울	국내 기타	전국	국외	무관	
중앙일간지	16(94.1)	56(23.4)	8(88.9)	4(66.7)	36(92.3)	120(38.7)
지역신문	1(5.9)	183(76.6)	1(11.1)	2(33.3)	3(7.7)	190(61.3)

$$\chi^2 = 104.265, \quad df = 4, \quad p\text{-value} = 0.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3.4. 취재지역별 기사의 특성

취재지역에 따른 치과위생사 관련기사는 <표 8>과 같다. 취재지역은 '서울'과 '국내 기타', 그리고 '전국', '국외', 기사가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이면 '무관'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취재지역 범위는 '국내 기타'에서 239(77.1%)로 월등히 높았다.

<표 9>는 취재지역별 신문종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지역', '전국', '국외', '지역 무관'의 경우는 지역신문에 비해 중앙일간지에 높게 보도되고 있었으나, '국내 기타' 지역의 경우 지역신문이 183건(76.6%)으로 보도횟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05$).

취재지역별 기사유형 비교분석은 <표 10>과 같

표 10. 취재지역별 기사유형

단위: 건, (%)

기사유형	취재지역					계
	서울	국내 기타	전국	국외	무관	
정보·해설	3(17.6)	53(22.2)	2(22.2)	1(16.7)	7(17.9)	66(21.3)
기획·특집	1(5.9)	5(2.1)	-	2(33.3)	10(25.6)	18(5.8)
평론·리뷰	-	-	1(11.1)	-	2(5.1)	3(1.0)
인터뷰·인물	4(23.5)	13(5.4)	-	-	5(12.8)	22(7.1)
칼럼·기고	3(17.6)	6(2.5)	-	1(16.7)	5(12.8)	15(4.8)
뉴스	6(35.3)	162(67.8)	6(66.7)	2(33.3)	10(25.6)	186(60.0)
$\chi^2 = 98.596$, df = 20, p-value = 0.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표 11. 취재지역별 기사주제

단위: 건, (%)

기사주제	취재지역					계
	서울	국내 기타	전국	국외	무관	
충치예방	-	6(2.5)	1(11.1)	-	4(10.3)	11(3.5)
인물	2(11.8)	18(7.5)	-	-	5(12.8)	25(8.1)
행사	1(5.9)	66(27.6)	-	1(16.7)	2(5.1)	70(22.6)
행정 및 제도	3(17.6)	82(34.3)	-	-	2(5.1)	87(28.1)
법적 업무	-	9(3.8)	5(55.6)	-	10(25.6)	24(7.7)
사회·생활	4(23.5)	22(9.2)	3(33.3)	5(83.3)	11(28.2)	45(14.5)
홍보	7(41.2)	36(15.1)	-	-	5(12.8)	48(15.5)
$\chi^2 = 128.834$, df = 24, p-value = 0.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χ^2 -test at $\alpha=0.05$

다. 취재지역이 ‘서울’인 경우 기사유형은 ‘뉴스’가 6건(35.3%), ‘인터뷰·인물’ 4건(23.5%), ‘정보·해설’과 ‘칼럼·기고’가 3건(17.6%) 순으로 나타났고, ‘국내 기타지역’은 ‘뉴스’ 162건(67.8%), ‘정보·해설’ 53건(22.2%), ‘인터뷰·인물’ 13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무관’한 경우는 ‘기획·특집’과 ‘뉴스’가 10건(25.6%), ‘정보·해설’이 7건(17.9%), ‘인터뷰·인물’과 ‘칼럼·기고’가 5건(12.8%) 순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표 11〉은 취재지역별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주제를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홍보’

가 7건(41.2%), ‘사회·생활’이 4건(23.5%), ‘행정 및 제도’가 3건(17.6%)로 나타났고, ‘국내 기타’의 경우는 ‘행정 및 제도’가 82건(34.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행사’ 66건(27.6%), ‘홍보’ 36건(15.1%), ‘인물’ 18건(7.5%) 순으로 밝혀졌다. ‘지역과 무관’한 경우 기사주제는 ‘행정 및 제도’가 87건(28.1%), ‘행사’ 70건(22.6%), ‘홍보’ 48건(15.5%), ‘사회·생활’ 45건(14.5%)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고찰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 각 조에 ‘치석제거,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구강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¹⁰⁾, 법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에서와 유사한 직업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를 보장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5년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면허를 부여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료사회의 환경은 의료시장의 개방추세와 글로벌 시대를 향한 보다 전문화된 치과위생사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¹¹⁾. 한편 남 등¹²⁾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구강보건활동 내용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진료보조 위주의 치과위생사 교육내용 이외의 폭넓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실천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미 앞서가는 국가의 프로그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매체는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메시지는 단기적·장기적으로 수용자 태도의 방향이나 강도, 그리고 새롭게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¹²⁾. 신문은 사회의식의 표현수단으로써 현실성, 공식성, 기록성, 보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¹³⁾, 보도적 기능, 지도적 기능, 평균화의 기능을 수행한다¹⁴⁾. 신문기사는 ‘5W와 H의 요소, 즉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n),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작성되기에 그 내용을 분석함은 사회적 현상을 쉽게 이해하는 데 편리하고 적절한 매체이다¹⁴⁾.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보도된 치과위생사 기사분석을 통해 언론의 시각과 관심을 객관적 정보로 전환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대중매체에 비춰진 치과위생사의 모습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치과위생사 관련기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유목을 선정하여 분석의 척도로 삼고 신문게재연도, 신문종류, 치과위생사 명칭에 따른 치과위생사 보도 건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치과위생사 관련기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중앙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에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게재된 기사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신문에서 뉴스기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내용이 행정 및 제도나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도별 공공구강보건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기사가 주로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의해 한층 높아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모형 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⁵⁾.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구강보건활동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등¹⁶⁾은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과 더불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조직 및 제도정비, 민간협력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구강보건 관련 지역사회자원개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질환관리,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구강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부응하여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인 치과위생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중매체의 특성으로, 기자가 ‘스스로 직접 경험했다’는 점을 기사에 제시할 경우 기자의 주장에 대한 수용자의 설득력은 높아지게 되며¹⁷⁾, 기자의 필수 요소로 언급되는 ‘인용’은 설득력과 함께 텍스트로 나타나는 기사에 대해 수용자가 더욱 동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¹⁸⁾.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치과위생사가 신문에 직접 기고할 때 기사내용에 대한 홍보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필자는 대부분이 기자였고 치과위생사가 필자인 경우는 1건에 불과하였다.

기사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명칭은 공식 명칭인 ‘치과위생사’의 사용이 131건으로 42.3%였고 ‘치위생사’라는 명칭은 153건(49.4%)으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혀 다른 업종을 의미하는 ‘위생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12건(3.9%)으로 나타난 점은 아직도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Auslander¹⁹⁾가 말하는 ‘전달’(distribution)의 매체적 기능을 언론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의 육성이 시급하고 취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흥미 위주의 보도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기사 작성이 요구된다 하겠다²⁰⁾. 본 연구 진행시 한계점은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의 자료만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분석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자료추출과정에서 조사원 간의 사전연구가 있었고 사전과 사후에 신뢰도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분석의 타당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총체적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및 산하단체에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올바른 명칭과 역할을 언론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이미지의 전략적인 홍보는 언론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의신보, 세미나리뷰 등의 치과계 신문에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의 보도성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평가 및 해결책을 모색하

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신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신문종류, 게재연도, 취재지역별 기사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치과위생사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관심을 파악하여 향후 대중매체와 상호작용하는 치과위생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KIND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국내 신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총 310건의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사하여 신뢰도계수는 0.96이었고 분석유목 간의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1. 신문종류에 따른 치과위생사 관련기사는 ‘지역신문’이 ‘중앙일간지’에 비해 보도횟수가 높은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p < 0.05$).
2. ‘치과위생사’에 대한 공식 명칭 사용은 42.3%였고, ‘치위생사’라는 명칭이 49.4%로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혀 다른 업종인 ‘위생사’라는 명칭 사용도 3.9%로 나타났다.
3. 기사유형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뉴스가 40.0%, ‘정보·해설’이 18.3%, ‘인터뷰·인물’ 15.8%, ‘기획·특집’ 14.2%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지역신문은 ‘뉴스’가 7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정보·해설’이 23.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 기사주제는 ‘행정 및 제도’가 28.1%로 가장 많았고, ‘행사’ 22.6%, ‘홍보’ 15.5% 순으로 나타났다.
5. 취재지역의 ‘국내 기타’ 지역을 다루는 기사가 239건으로 대다수를 이루었고 ‘지역과 무관’이 39건, ‘서울’ 17건, ‘전국’ 9건 순으로 나타났다.
6. 취재지역에 따라 기사주제는 ‘서울’은 ‘홍보’, ‘국내 기타’에서는 ‘행정 및 제도’, ‘전국’은 ‘법적 업무’, ‘지역 무관’의 경우는 ‘사회·생활’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였다($p < 0.05$).

위의 결과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지역신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전국 규모의 중앙일간지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다.

참고문헌

1. 강부월, 강재경, 강현경, 구인영, 권현숙, 권홍민 외 17인. 치과위생학개론. 서울:지성출판사;2008:11.
2. 민희홍,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김호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207-218.
3. 광정민,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학교구강보건 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치대논문집 1998; 22(2):223-267.
4. 남수정. 한국 주요 신문의 무용기사 분석. 박사 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대학원;2005.
5. 광정래. 탈북 이주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서울대학교;2006.
6. Eveland, WPJR, McLeod JM, Horowitz EM. Communication and Age in Childhood Political Socialization: An Interactive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kyy. 1999;75(4):699-718.
7. 정유진, 김장환, 유재원. 대중매체를 통한 댄스스포츠의 대중화과정. 한국체육학회지2003; 42(3):355-364.
8. 김학철, 김병길, 김동규. 현대미디어의 이해. 서울:건국대학교 출판부;2001.
9. 장운진.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보도경향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산: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2007.
10. 박용덕, 강종오, 김민아, 김응권, 송귀숙, 유수민 외 2인. 국가고시 대비 의료기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7판. 서울:대한나래출판사;2008:186.
11. 남용옥, 문혁수, 정진아.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동인력으로서의 활용정립을 위한 소고(I).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8; 22(1):57-68.
12. 함미애. 한국 신문의 장애에 대한 보도경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1998.
13. 강현두.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도서출판 남남;1995.
14.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시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1):59-67.
15. 박유봉.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일조각; 1995.
16. 김숙향, 정세환, 장종화.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인식 및 실천도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 29(1):1-13.
17. Zerizer B. Where is the author in American TV news? On the construction and presentation of proximity, authorship, and journalistic authority. Semiotica 1990; 80(1/2):37-48.
18. 송용희.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5; 49(3):80-104.
19. Auslander, Philip. Ontology vs. history: Making Distinctions Beetween the Live and the Mediatized. Digital Conference on Performance and Technology, 1997.
20. 김성태. 공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수돗물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39:40-69.

Abstract

Newspaper analysis of research on dental hygienists in Korea from 2005 to 2008

Sang-hwan Oh, Yong-Ok Nam¹, Jong-Hwa Jang²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Key words : Newspaper article, Dental hygienist, Images of dental hygienist, Terms of dental hygienis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way of the dental hygienist to explore the articles of dental hygienist that were presented in the newspaper during the recent 3 years of Korea.

Methods : This study is to examine dental hygienist articles with content analysis in the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of the Korean Press Foundation. Data were gathered from the printed newspaper of Korea over a period of 3 years - 1 March, 2005 to 30 March 2008. News reports, comments and letters to the editor were analysed, which revealed an image of dental hygienist that we would like to explore and debate. The obtained data from the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d test between categories after inter-coder reliability test (reliability 0.96).

Results : The articles of dental hygienist according to type of newspaper, 'local newspaper'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metropolitan newspaper'. It mix '치과위생사' (42.3%), '치위생사' (49.4%), and '위생사' (3.9%) in use of name.

The article pattern, 'news' 40.0%, 'information · commentary' 18.3%, 'interview · man' 15.8%, 'special news' 14.2% in metropolitan newspaper, then, 'news' 72.6%, 'information · commentary'

23.2% in local newspaper ($p < 0.05$). Most plenty of subect is 'administration · system', and then 'celebration', 'publicity'.

It showed 'seoul' was 'information · commentary', 'country' was 'administration · system', 'whole' was 'legal duty', 'unrelated area' was 'social · living' in the topic of article according to newsbeat($p < 0.05$).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ublicity name, duty of dental hygienist in metropolitan newspaper officially.

접수일-2009. 1.23 수정일-2009. 2.24 게재확정일-2009. 3.15